

의인이 되기 위한 길

자존심을 건드리면 선이 나오지 않고 악이 나오므로 자존심은 악 중의 악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지지지적(知己知敵)이면 필승.”이라는 말은 손자병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자신을 몰라가지고 또 적을 몰라가지고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생활을 할 때에 이 손자병법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는데 과연 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은 그냥 흘려 보거나, 흘려 듣거나 그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리요, 진리라고 이 사람은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알고 적을 안 다음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데 이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서 씩씩거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멍청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 봐야 맨날 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지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지게 되고 그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이 되는 자존심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 되는 것이 승리제단 나오는 목적

이 사람이 신앙 간증담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을 이긴자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 소리를 듣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림뱅이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마귀새끼로 여기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긴자가 걸어온 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지 아니하면 승리제단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어야 이제 승리제단에 나오는 보람이 있고, 승리제단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에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려면 이 사람이 이긴자가 어떻게 해서 됐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마귀 소릴 듣고, 수십 년 동안 못매를 맞고, 갖은 욕을 먹으면서 완전히 발을 불이려야 불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간직이 되려면 마귀가 들어 있는 죄인과 상대를 하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외톨박이가 되어야 이긴자가 되지 이제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이 사람이 신앙촌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사람을 보면 외면하고, 이 사람을 보면 마귀새끼라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래침을 신사 양복에 뱉었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왜 남의 옷에다가 가래침을 뱉느냐?”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구세주 조희성님

푼을 뜯어가지고 그 가래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가래침을 뱉을 때는 “이 마귀새끼야.” 하고 께뻘한 마음을 가지고 가래침을 뱉었지만 이 사람이 아무런 반항 없이 푼을 뜯어가지고 그 가래침을 뱉어내고 할 때 자기가 비웃었지만 그 사람도 양심이 있는고로 버스타려 나가려면 한참을 나가는고로 걸어가면서 “나도 너무했구나.” 하고서 반성이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촌 5만 제단에 늘 새벽 예배 보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예배 보러 올라가지만 하면 목살을 쥐고 질질 끌어내다가 소나무가 많은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개 패듯 했던 것입니다. 모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그냥 개 패듯 하고 발로다 짓이기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당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오염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따리 싸 가지고 신앙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맨날 두드려 패니까 맨날 매 맞기 싫어서라도 나오게 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니까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맨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고로 보따리 싸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수십 년간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자존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때려도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과 같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서

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을 상대해주시지 아니하니깐 이 사람이 친구가 없으므로 죄인하고 상대를 해서 얘기해야 오염이 될 텐데 죄인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오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친구가 없고, 이 사람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세상을 홀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긴자 되는 비결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뭘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긴자 되는 비결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려면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긴자가 되려면 바로 세상에 친구가 없어야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야끼어 있는 사람도,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야만 은혜가 간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간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이 고통의 씨앗이요 괴로움의 씨앗이요, 자존심이 죽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고, 자존심만 없으면 기분 나쁠 일이 없고, 자존심만 없으면 화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 병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고통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배에 걸리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요 피가 썩는고로 늙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피가 썩

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으면 피가 썩게 되어 있고, 피가 썩으면 바로 늙게 되어 있고, 피가 썩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로 마귀

이 세상에 이 학설 이상 높은 학설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이 없는 상태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참 사람이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로 마귀인고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바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승리제단 나오는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승리제단 식구 자격이 있는 것이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투쟁도 안 하고, 늘 자존심을 앞세워 고개를 버쩍 들고 잘난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 승리제단 식구 자격이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른 두세 살 때에 신앙촌에 입주해서 50살이 될 때까지 모진 압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돌림뱅이를 당하고, 발길에 채이고 돌팔매를 맞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생활이 신앙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인 생활을 할 때도 세상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1992년 4월 9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하냐

사 피의 완성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필요

불완전한 존재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 실패자의 변명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믿음이 또한, 고정관념이다. 이는 모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이 완전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완성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로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자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은 인간의 가장 큰 장애이자 병이다. 먼저 이러한 그릇된 절대적 믿음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완성자가 되는 길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다. 인간이 완성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경전의 주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조차 믿는 마음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위대한 일과 발견은 단 1%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제 그리 놀랄 만한 사실도 아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업적은 모두가 1%의 가능성을 믿고 실천하고 또 실천했다는 것이다.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

믿음은 작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더욱 크다고 해야 맞다. 예를 들자면, 보석은 원래부터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 원석일 때는 일반 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울퉁불퉁 못생긴 돌무더기로 천 층만 층 쌓여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여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으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띤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본래는 보석과 같은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머금고 있지만, 다른 잡다한 돌(잡념 망상)과 뒤엉켜 제멋대로 생겼다. 그래서 우선 사람의 본질이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잡다한 돌과 같은 그릇된 마음을 제거토록 해야 한다. 찬란한 빛은 어둠으로 덮을 수 없다. 잘 다듬어진 완성의 성품은 우리의 주변을 빛나게 한다. 사람은 본래 보석과 같은 완성의 성품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부단히 그 본성을 드러내는 행이 따를 때, 완성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우올림픽 최고의 스타 박상영 선수는 패배 직전 할 수 있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므로써 기적의 역전승을 거뒀다

믿음을 굳세게 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100%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진다. 순도 100%의 인격체가 완성자(神神 하나님 부처님)이다. 여전히 신(하나님 부처님)을 만날 때 가서 찾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람들이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거의 1%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러한 믿

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없다.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라나는 환경과 인연, 배움의 정도에 따라 그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성공과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실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심리학의 대가가 임버트처럼 하는 말이다. 성공학에서도 부정과 비판은 만사를 그르치게 하는 저해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믿음과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면 성공하듯, 인성과 도덕도 얼마나 부단히 갈고 닦느냐에 따라 보석이 되느냐 내팽개쳐진 돌이 되느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믿음이 약한 자는 그만그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자는 완성자가 되어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믿음도 수많은 담금질이 필요

굳센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담금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훌륭한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도 쇠를 달구고 때리고, 또 달구고 때려야 한다. 쇠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달구고 때리고를 반복하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불순물이 되는 악습과 죄악의 성품을 완전히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이 주어진다.

그 가운데서 완성자가 되겠다는 믿음, 선(善)과 의(義)로 풀뚝 뚫어진 순도 100%의 하늘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혹여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약해지게 되

면 보통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격이 된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

이러한 담금질은 비단 완성자가 되는 길에서만 오는 과정이 아니다. 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담금질이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큰일과 역할을 맡아 해내는 시대적 사명자(使命者)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자가 많을수록 사회는 점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와 인간사 총체적 위기는 어떠한 정치적 힘으로도, 법적 제도의 힘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인격도야와 의로운 행실로서만이 세상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지상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큰 뜻과 포부를 품은 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이는 곧,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담금질’이라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호 기자

완성자(성인군자·부처님·하나님)가 되기 위한 행(行)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져